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바실리스크스 순교자

부활 후 제 5주일 / 사마리아 여인 주일

성 안드로니고스, 성 이우니아 70인 사도

제 4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1,2,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제 4조 부활 찬양송 / 82, A214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1:19~30 / 254, 봉독서 64
- 복음경 : 요한 4:5~42 / 100, B 20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루가 22: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5월 22일 축일로 기념하는 콤파논의 바실리스크스 주교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돌아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순교를 준비하고 돌아오라고 권고해주었습니다. 거룩한 이들의 투쟁에 그리고 삶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지지와

힘을 주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들은 덕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훌륭한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이전의 훌륭한 경기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어렵고, 무겁게 우리들에게 보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이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이번 코로나19사태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신앙의 자세를 살피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먼저는 창조주의 뜻을 저버리고 오는 종말의 맛을 보았고, 둘째로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안일하고 합리적이며 극히 인간적인 것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였구나 하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과 증거자들 그리고 수도자들과 같은 성인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들의 숭고하고 담대한 믿음 앞에 우리의 빈약한 믿음의 자세를 회개하게 만드는 계기도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하고 악으로 치달으면서 극에 달아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겪으면서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노아의 시대에 세상종말을 겪었던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다.

거리에 포스터 중에서 코로나 사태로 방문을 삼가 해야 할 장소를 그림과 함께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건물로서 엑스자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까지 되어버린 현실을 보며 마음이 무척 아팠고 반성도 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게 되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매순간 긴장을 하며 예식을 집전하는 가운데, 성모님의 보호와 위로를 더욱 느끼게 되었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더욱 실감하며 감동하게 되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굴욕을 당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면서 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한

줄기 희망을 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믿음을 굳건히 갖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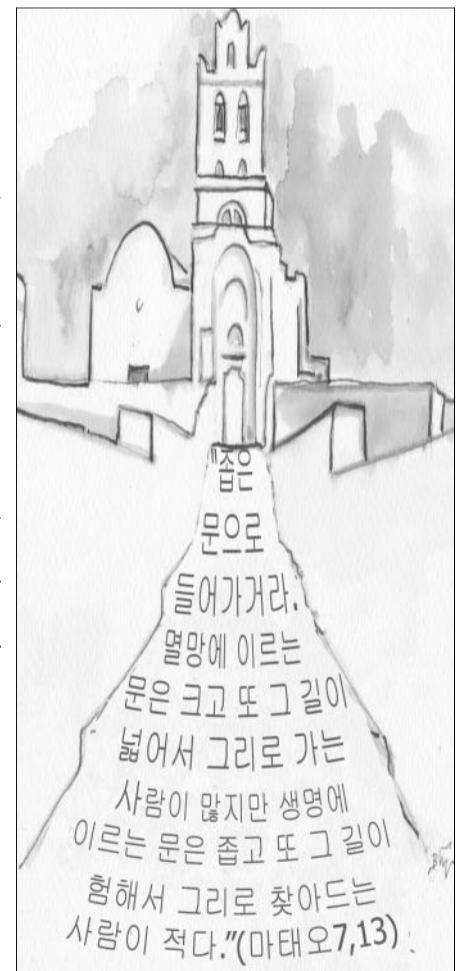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요한4,14)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희망도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악에 파묻혀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이 바르고 그릇 된지도 모르면서 악의 유혹에 농락당하며 악과 타협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악과 투쟁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타협하고 서로 나누며 공생하려고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마태오7,13)

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악과 투쟁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이겨 나아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여러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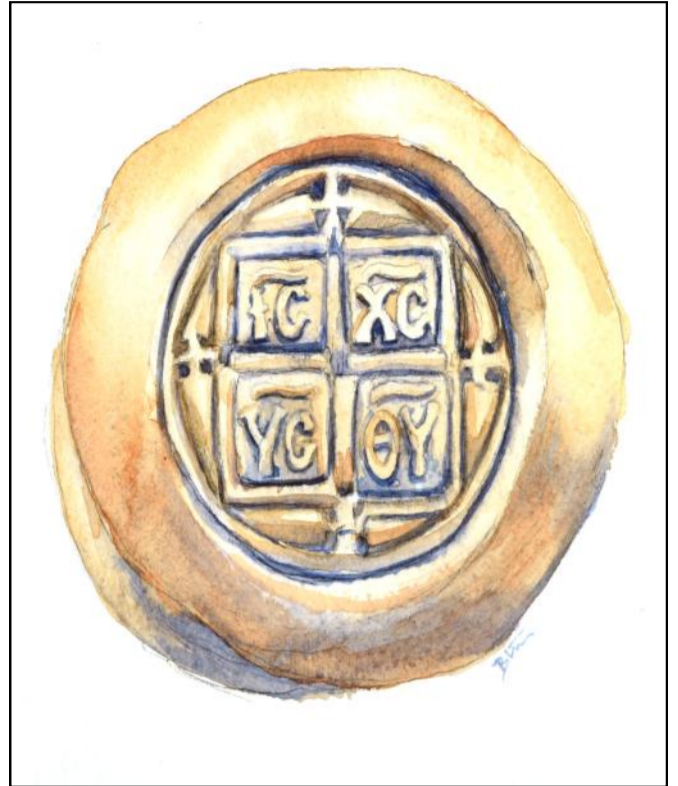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크게 슬퍼하며 부끄러워할 때 그에게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며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의심하며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은 새로운 깨달음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통치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근채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로 인해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변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강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사자처럼 대답해졌다. 찬양하고, 기뻐하였으며, 병자들을 낫게 하고, 가르쳤으며, 잠깐의 열정이 아니라 남은 일생을 전부 다 바쳐서 당당하게 고난을 견뎌냈다. 이런 기적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며 같으시다.(히브리서13:8) 그분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면, 지금도 오신다. 그 옛날 나타나셨다면, 지금도 나타나신다. 그분이 그 옛날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지금도 드러내신다.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다. 의심하고 실망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시기 위해 오신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잡아주시기 위해 오신다. 예수님은 죽어계시지 않다. 그분은 단지 위대한 교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오늘도 그분은 오신다. 바울로 사도가 쓴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팔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고린토1서 15:8)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다. 의심하고 실망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시기 위해 오신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잡아주시기 위해 오신다. 예수님은 죽어계시지 않다. 그분은 단지 위대한 교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오늘도 그분은 오신다. 바울로 사도가 쓴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팔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고린토1서 15:8)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타나시아

소식

대교구

→ 코로나19 주의.

아직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또 우리들에게 다시 위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지한대로 매일 밤 10시에 하는 기도 운동에 우리 모두가 좀 더 집중해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자가 코로나19로부터 보호되고 주변이웃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성당에 모여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러시아 승리기념일 추도식 행사.

지난 5월 9일 토요일에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추도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슬라브 교인들이 다수 참여하여 전쟁 때 희생한 신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거행하고 계속해서 주교청 홀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로만 신부님과 슬라브 신자들이 함께 모여 다과를 하면서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성당 재건축.

하느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중보로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하여 현재 기초공사가 설계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모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과 운영위원들 그리고 신자들은 매일 관심을 가지고 공사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중보로 성당의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예식



5월21일(목) 성 콘스탄티노스 황제와
성 엘레니 모후 사도대등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